

2025년 2/4분기

인천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보고서

2025. 4



Contents

SECTION 1.		<표 목차>
설문조사 개요	1	1.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4
SECTION 2.		2. 2025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5
1.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2	3. 미국발 수입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로 소비시장 둔화 전망 5
① 종합 경기 전망	2	4.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망 5
② 부문별 경기 전망	3	5.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6
③ 업태별 경기 전망	4	6.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시장과 가계 부채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긍정적 영향 가능성 6
2. 유통업 경영 환경 전망	5	7. 국내 소비시장 회복 시기 전망 6
① 2025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5	<그림 목차>
②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른 국내 소비시장 전망	5	1.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2
		2. 경영 부문별 '25년 2/4분기 전망 3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 3. 7 ~ 3. 20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 RBSI 산출식

$$(호전예상\ 응답\ 기업수 - 악화예상\ 응답기업수) / 응답기업수 \times 100 + 100$$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 65개사
- 응답기업 분포
 - 업태별 <대형마트 (9개), 편의점(25개), 슈퍼마켓(12개), 무점포소매 (19개)>

1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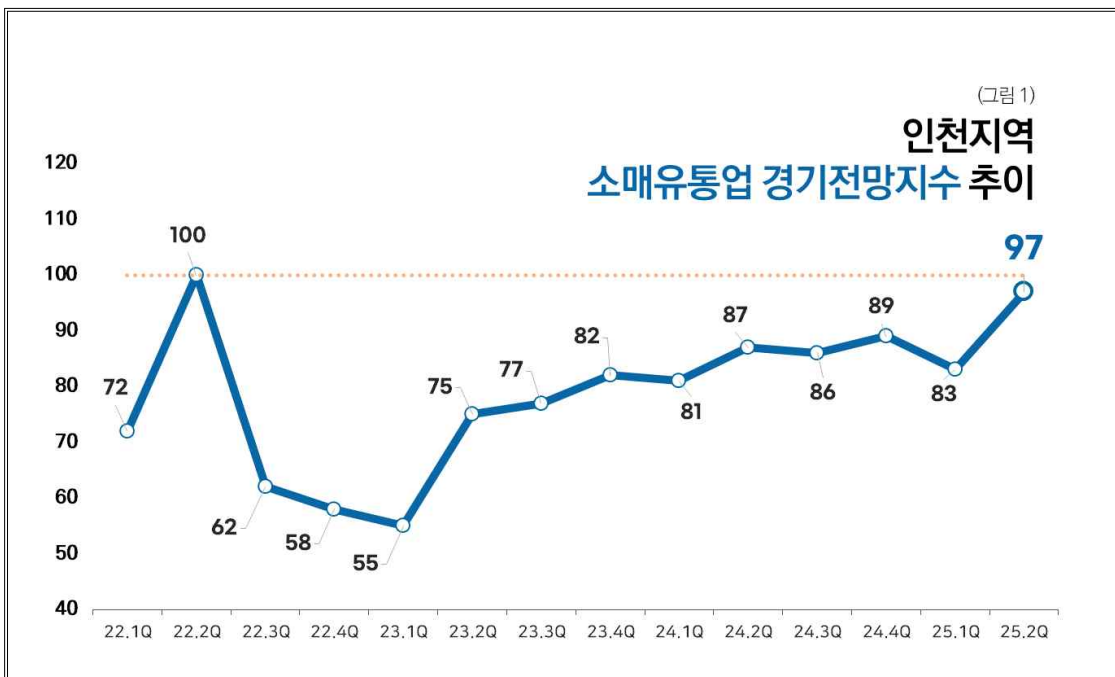
① 종합 경기 전망

-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2/4분기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2025년 2/4분기 전망 RBSI는 '97'로 조사되어 직전 분기에 이어 기준치(100)에 미달하였음. 2/4분기에도 소매유통업의 완전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RBSI(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 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인 경우 그 반대 현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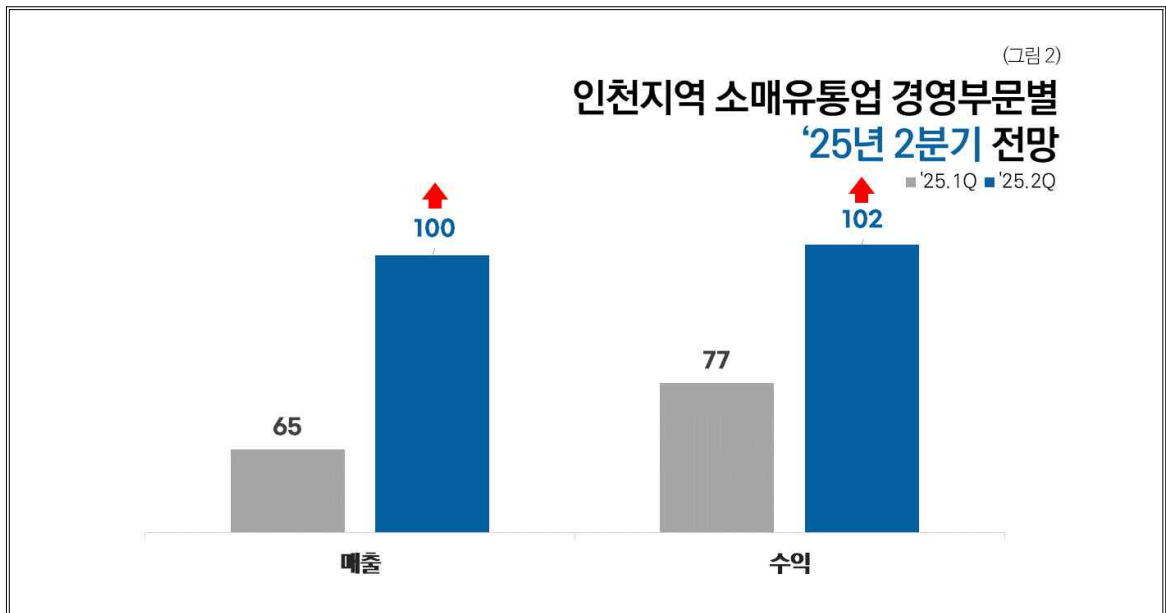
- 여름철 특수라는 계절적 요인과 정치상황 안정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졌으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 지속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비 심리 또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내다봄

- 인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전년동월비, 통계청] : 2.4%[25.1] → 2.2%[25.2] → 1.8%[25.3]
-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 인천본부] : 86.7[25.1] → 90.3[25.2] → 89.2[25.3]



② 부문별 경기 전망

- 2025년 2/4분기 소매유통업계의 매출 전망지수는 '100'으로, 이는 소매유통업체들이 2/4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의미함
- 수익 전망지수는 '102'로 집계되었으며, 직전 분기보다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12월부터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과 여름 성수기 효과로 인해 매출 및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응답함
- 다만,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었음



③ 업태별 경기 전망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2025년 2/4분기 업태별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는 대형마트(67), 편의점(92), 슈퍼마켓(117)로 업태에 따라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에 대해 다르게 예상함
- 대형마트(67)는 경쟁 심화(동종 업태 주변 입점, 온·오프라인 경쟁 등)에 따른 매출 및 수익 감소 우려뿐만 아니라 2/4분기에도 오프라인 소비 위축,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등으로 경기 부진을 예상함
 - 인천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비, 통계청] : 27.0%[‘25.1] → -10.8%[‘25.2]
- 편의점(92)은 여름철을 맞아 음료, 주류, 빙과류 등 계절 품목의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 기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양상을 보임. 이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업계 내 경쟁 심화, 고물가의 지속,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슈퍼마켓(117)은 편의점과 달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 2/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직전 분기와 비슷하거나 부정적일 것으로 응답함

인천지역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표 1)

업 태	'22년			'23년			'24년			'25년		전기비 증감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총 합	100	62	58	55	75	77	82	81	87	86	89	83	97	+14p
대형마트	107	89	78	89	111	67	89	89	111	100	78	78	67	-9p
슈퍼마켓	97	17	67	50	50	58	58	83	75	83	100	92	117	+25p
편 의 점	98	104	92	88	72	116	108	68	84	76	76	72	92	+20p

※ 인천지역 백화점 업태의 경우, 표본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개수 미달로 지수에 반영하지 않음

2 유통업 경영 환경 전망

① 2025년 2분기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2025년 2/4분기 경영 활동 시 예상되는 가장 큰 현안 및 애로 사항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2.3%)이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미국 수입관세 부과’(23.1%), ‘국내 정치 불확실성(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등)’(15.4%) 순으로 조사됨

2025년 2분기 경영 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 사항 (표 2)

조사항목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수입관세 부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알리 등)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	업체간 경쟁 심화	비용 부담 증가(인건비, 금융, 물류비 전기 등)	환율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응답업체 (비중)	21개 (32.3%)	15개 (23.1%)	10개 (15.4%)	7개 (10.8%)	7개 (10.8%)	4개 (6.2%)	1개 (1.4%)

②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른 국내 소비시장 전망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69.2%는 ‘미국발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시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함(‘매우 그렇다’ 20.0%, ‘그렇다’ 49.2%). 응답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통업계를 포함한 국내 소비시장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미국발 수입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로 소비시장 둔화 전망 (표 3)

조사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업체 (비중)	13개 (20.0%)	32개 (49.2%)	16개 (24.6%)	2개 (3.1%)	2개 (3.1%)

- 국내 정치 불확실성(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응답 업체 70.8%(‘매우 그렇다’(24.6%), ‘그렇다’(46.2%))가 소비심리 위축을 예상함. 반면, 정치 상황이 곧 안정될 것으로 판단한 일부 응답 업체(‘그렇지 않다’(10.8%), ‘전혀 그렇지 않다’(1.5%))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봄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망 (표 4)

조사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업체 (비중)	16개 (24.6%)	30개 (46.2%)	11개 (16.9%)	7개 (10.8%)	1개 (1.5%)

- 응답 업체의 83.1%(‘매우 그렇다’(20.0%), ‘그렇다’(63.1%))는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함. 소매유통업계에서는 환율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소매가도 인상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표 5)

조사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업체 (비중)	13개 (20.0%)	41개 (63.1%)	8개 (12.3%)	2개 (3.1%)	1개 (1.5%)

- 기준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주식·부동산)과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44.6%)(‘그렇다’(40.0%), ‘매우 그렇다’(4.6%))로 나타남. 이어 ‘보통이다’(33.9%), ‘그렇지 않다’(21.5%)(‘그렇지 않다’(20.0%)와 ‘전혀 그렇지 않다’(1.5%)) 순이었으며, 금리 인하만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남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시장과 가계 부채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긍정적 영향 가능성 (표 6)

조사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업체 (비중)	3개 (4.6%)	26개 (40.0%)	22개 (33.9%)	13개 (20.0%)	1개 (1.5%)

- 국내 소비시장 회복 시기에 대하여 ‘2026년 이후’(43.1%)로 예측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2025년’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32.3%를 차지함. 한편, 국내 소비시장이 회복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응답도 24.6%로 나타나 단기간 내 국내 소비시장의 활성화는 어려워 보임.(‘2027년 이후’(15.4%), ‘2028년 이후’(9.2%))

국내 소비시장 회복 시기 전망 (표 7)

조사항목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6년 이후	2027년 이후	2028년 이후
응답업체 (비중)	2개 (3.1%)	19개 (29.2%)	28개 (43.1%)	10개 (15.4%)	6개 (9.2%)